

물이 솟아나는 못 위로 늘어졌네. 그 나무 두 그루를 심은 것을 제외하면, 바윗골은 자연이 가꾸놓은 모습 그대로 남겨져 있었지. 축축한 갈빛 바윗면에서는 검은빛과 초록빛이 어우러진 공작고사리 이파리가 별 모양을 그리며 사방으로 퍼져나갔고, 골고사리 다발은 자줏빛이 감도는 초록색 리본처럼 길게 매달려 바람 따라 치렁댔어. 그 부근으로 붉은 꽃무와 거의 흡사한 꽃이 피는 빈카 꽃밭과, 껍질이 산호보다도 훨씬 밝은 핏빛을 띤 고추밭이 경계를 이루며 점차 넓게 퍼져나가고 있었네. 주위에서는 하트 모양 잎이 달린 얼룩무늬박하와 정향 냄새를 풍기는 바질이 그야말로 지극히 달큰한 향기를 내뿜고 있었지. 산벼랑 위쪽에서부터 타고 내려온 리아나덩굴은 공중에 펼쳐지는 휘장처럼 늘어져, 푸르른 녹음의 장막으로 바윗면을 거대하게 감싸고 있었네. 이 평화로운 안식처에 매료된 바닷새들은 이곳을 찾아와 밤을 보내곤 했어. 해 질 녘이면 해안신을 따라 날아드는 마도요와 바다종달새가 보였고, 하늘 높은 곳에서는 마치 태양이 자취를 감추듯 검은 군함조가 하얀 열대새와 더불어 인도양의 적막을 등지고 날아가는 모습이 보였다네. 비르지니는 웅장하면서도 야생 그대로의 화려한 꾸밈새를 갖춘 이 샘터를 즐겨 찾아 휴식을 취하곤 했지. 종종 이곳에 와서 두 코코넛나무가 드리운 그늘 아래 식구들의 빨래를 하는 일도 있었어. 때로는 집에서 기르던 염소들을 데려와 풀을 뜯게 했지. 염소들한테 짜낸 우유로 치즈를 만드는